지역 소식통

군산시, 각종 방송 촬영지로 각광

군산시가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 방송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는 올해 말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어 섬 여행을 다루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KBS '6시 내고향', '생생정보투데이', MBC '맛있을지도', SBS '백종원의 3대천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군산의 맛과 볼거리가 소개됐다.

최근에는 KBS 드라마 '김과장'의 1, 2회가 군산 전역에서 촬영됐으며, tvN '동네의 사생활-군산편'에서는 군산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소개되기도 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최근 합격자가 발표된 제57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96명 전원이 합격했다.

특히 전국 평균 합격률이 96.4%를 보인 가운데 원광대 간호학과는 6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간호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남옥 교수는 "실무능력을 갖춘 과학적 지식인과 도덕성·윤리성을 겸비한 지성인, 인류공동체에 봉사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자는 학과 교육목표와 간호인재상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 등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을 비롯해 학생들의 땀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학과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고용노동지청, 안전기원제 실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5일 군산 오성산에서 산업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기원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안전기원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무재해 달성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

미래농정국 신설 조직개편 추진

익산시는 농업분야의 트렌드변화에 앞장서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미래농정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북부지역에 농업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익산시 북부청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조직개편 이후 익산시 미래농정국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을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농식품산업의 중심, 미래의 희망이 되는 익산의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농정 혁신과제는 직원들과의 분임토의를 거쳐 5개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농정거버넌스 구축, 식품산업 및 유통혁신, 창조농업 실현, 삶의 질 향상」의 4개분야 17개 과제를 확정했다.

미래농업을 이끌 미래농정국은 농민과 농민단체, 농업정책 전문가 등이 정책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뒤에서 보조해주는 농정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전북도청 등의 농업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판매를 도맡는 공동출하의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며 산지유통계획을 변경을 통해 농협 외의 별도의 경쟁력 있는 농업유통조직을 설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마케팅에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시장의 변수인 FTA와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생산작물을 다각화하며 미래농업의 트렌드인 스마트팜 및 벤처농업 등의 ICT 융복합 스마트 창조농업 실현하고 젊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국내·외 농업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시비 직불금 지급대상을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개선하여 논 생산품목을 다양화할 것이고 농업분야 보조금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수익이 발생한 보조사업자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영세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대농가 및 법인 편중지원 등의 특혜시비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농연계 6차산업화 등의 농촌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최고의 으뜸마을과 대표 농촌관광코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농정국을 책임질 유희환 국장은 농업정책과장과 농산유통과장을 역임했으며 농정기획계장을 담당하면서 농업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췄으며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 농민단체, 귀농귀촌자, 농업기관 등으로 전문가그룹의 농정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을 도모할 실질적인 혁신(시책)과제를 발굴해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호원대, 2017학년도 신학기 준비 박차

26개 학부 신입생 전원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2017학년도 신학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원대는 26개 학부(과)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2017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의 진로탐색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단검사 및 진로·취업상담 안내, 동기유발 특강과 더불어 학부(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전공 교수와 진로설계, 졸업생 멘토 특강, 재학생 선배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호원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스마트러닝 서비스로 1학기에 개설된 12개 강의에 대해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맛보기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의맛보기 동영상 서비스'는 문서형태의 강의계획서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입체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의 이해도와 선택권,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숙형 영어사관학교, 평생지도교수제, 호원 HOPE 프로그램 등 우수한 교내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도입 및 장학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및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강희성 총장은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2017학년도 신학기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추가모집을 통해 아직 대학을 정하지 못한 입시생들의 대학 지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우수중학생 등 131명 장학증서 수여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은 16일 관내 우수중학생 85명과 예체능 장학생 46명 등 총 13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우수중학생 85명은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2017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상위 100위 이내 학생이다.

장학금은 총 1억7000만원으로 1~20위(300만원), 21~50위(250만원), 51~80위(150만원), 81~100위(100만원)이 지급된다.

예체능 장학생 46명은 2016년도에 개최된 예술 및 체육분야의 전국단위 대회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선발 공고를 통해 예술·체육분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예술분야 19명과 체육분야 27명의 장학생으로 개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총 5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우수중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강혜택으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져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학생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열정과 신념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든든한 후원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를 발굴·지원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창의인재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철도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익산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익산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5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교통 중심도시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역은 전라북도 거점 역이자, 대한민국 중심역이다. 2016년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 운행되면서부터는 1일 224회의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다"며 호남선 및 장항선의 시종착역으로서 교통중심지인 익산시의 역할과 체계적인 철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원광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 '미래발전구상' 용역에 반영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인입철도건설 사업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지역핵심공약에 선정될 수 있는 방안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각각 모색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비전익산2012 박봉수 대표는 "지역주의에 입각한 KTX 혁신역 위치인 김제시공덕은 고속열차의 최소한의 제동거리인 40km 이내인 7~8km내 위치로 부적합하고 전문학적 예산낭비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익산시의 체계적인 철도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16일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규 사업 발굴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330억원 규모, 37건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조성사업, 근대문화자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향후 단계별 논리를 개발해 2018년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선과 정부 추경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정당별·후보별 관심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 발굴 완료 후에는 신규 및 계속사업 전체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액을 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지역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